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9년 2월

석사학위 논문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진솔성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정 가 애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진솔성의 매개효과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2019년 2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정 가 애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지도교수      권 해 수

이 논문을 상담심리학 석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10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상담심리학과

정 가 애

## 평가애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정승아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권해수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오지현 (인)

2018년 11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 목 차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	7
II. 이론적 배경 .....	8
A. 이성관계 만족도 .....	8
1. 이성관계 만족도의 개념 .....	8
B. 남성 성역할갈등 .....	10
1. 성역할갈등의 개념 .....	10
2.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 .....	12
C. 관계진술성 .....	12
1. 관계진술성의 개념 .....	12
2. 남성 성역할갈등과 관계진술성 .....	13
3.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	14
III. 연구 방법 .....	15
A. 연구대상 .....	15
B. 측정 도구 .....	15
1. 남성성역할갈등 척도 .....	15
2. 관계진술성 척도 .....	16
3.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	17

C. 자료수집 .....	18
D. 분석방법 .....	18
IV. 결과 .....	20
A. 기초통계 분석 .....	20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	20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	22
B. 매개효과 분석 .....	24
V. 논의 .....	28
A. 결론 및 논의 .....	28
VI. 참고문헌 .....	32
VII. 부록 .....	39
1. 남성성역할갈등 척도 .....	39
2. 관계진술성 척도 .....	42
3.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	45

## 표 목차

<표 1> 남성 성역할갈등 척도의 구성내용 .....	16
<표 2> 관계진솔성 척도의 구성내용 .....	17
<표 3>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의 구성내용 .....	18
<표 4>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	20
<표 5> 주요 변인의 교제기간별 차이 일원변량분석 결과	21
<표 6>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	22
<표 7> 이성교제 초기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23
<표 8> 이성교제 초기이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	23
<표 9>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관계진솔성의 매개효과(6개월 이하) .....	25
<표 10>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관계진솔성의 매개효과(7개월 이상) .....	26



##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 모형 .....	7
<그림 2> 교제기간 6개월 이하의 남성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	25
<그림 3> 교제기간 7개월 이상의 남성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	26

## ABSTRACT

### The Influence of Gender Role Conflict on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Male University Students : The Mediating Effect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Jung Ga Ae

Advisor : Prof. Hae-Soo Kweon, Ed. D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men's gender role conflict, caused by internalized gender roles in socialization process of childhood, affects the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of an early adulthood. On the basis of previous studies, it attempted to formulate and test the hypothesis that the relationship authenticity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Research data was collected from 214 male university student in the G area. The scales used in the study were Men's Gender Role Conflict Scale(MGRCS), Korean version of Authenticity in Relationship Scale(K-AIRS)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The hypothesis of study was verifi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men's gender role conflict is negatively related to relationship authentic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relationship authenticity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differ over the duration of a date. Third, regardless of the dating period, relationship authenticity is fully mediated in the men's gender role conflict and Romantic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ose with men's gender role conflict tend to lower levels of satisfaction with relationship as their relationship authenticity decreases. Finally,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for counselors are discussed.

# I. 서론

##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학생은 규율에서 벗어나 대학에 입학하며 자유를 갖게 되는 시기이며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된다. Erickson(1959)은 심리사회적 발달이론에서 성인 초기는 친밀감 대 고립감의 단계로 설명했다. 친밀감이란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과정에서 자신을 상실 할 것 같은 두려움 없이 솔직해지고, 그를 위하고 싶어지고, 좋아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박노권, 1998).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상담적 요구를 분석한 연구에서 24.63%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요구한다고 보고했다(박미라, 2017).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행된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해 폭넓은 대인관계와 이성교제에 많은 수가 응답했다(김광수, 김현령, 2013; 김유숙, 2012). 대학생들은 이성교제에 관심과 기대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경험한다. 하지만 긴밀한 연인 관계를 맺으면서 원만한 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기도 한다(설기문, 1993). 최근 각종 미디어에서 연애를 소재로 한 프로그램이 등장하였고, 사람들은 이를 통해 연애를 학습하거나 조언을 구한다(이다혜, 류용재, 2017). 대학생들은 보다 나은 연애 관계를 위해 미디어를 이용하거나 상담실에 방문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성 관계가 결혼에 비해 상호 책임이 덜하다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그동안 이성관계 만족과 관련하여 이성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진행되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인 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특히 불안애착과 회피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나타내었다(김용주, 장현아, 2017; 김희경 외, 2012; 노유진 외, 2006).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적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박효경, 김현아, 2017; 김지민, 홍혜영, 2016)와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다는 선행연구가 있다. 거부민감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거부불안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이 저하되었다(박영은, 2017; 조재숙, 2017; 박선미, 2017). 이성관계 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살펴보면 정서조절, 자기노출, 자기표현 등과 관련이 있다. 개인의 정서조절 능력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설옥경 외,

2016).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성인애착, 내현적 자기에, 거부민감성, 정서조절과 같은 개인내적 변인들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일부 변인에서 성차가 존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 점에서 기여한 바가 있으나, 그 성차에 대해 심층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는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진행된 경우가 많고 일부는 여성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이성관계 만족도 연구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있지만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없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남성과 여성의 발달 경로에서 남성은 자율, 독립, 분리의 방향으로, 여성은 애착, 관계, 친교, 유대의 방향으로 심리적 발달을 이루는 차이(송슬기, 2014)로 인해 관계의 문제가 여성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때문이다. 둘째, 일반적 통념상 여성이 남성보다 집착행동이 높다는 것(김소희, 이영순, 2015), 셋째, 초기 성인기의 남성은 군 입대라는 상황적 요인이 개입한다는 점으로 인해 남성의 이성관계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었다. 그러나 김소희, 이영순(2015)의 연구에서 남성에게서도 집착행동이 관찰되었고, 박윤주(2016)는 관계의 지속과 결별에 남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힌 바 있으므로, 남성을 대상으로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심층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의 연구 결과에 차이가 존재한다. 구체적으로 연인 간 갈등해결에 있어서 관계의 질을 중시하는 여성은 남성보다 갈등 상황을 더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관계의 위상을 중시하는 남성은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Kwang, 2013; 박찬미, 설경옥, 2017에서재인용; Knee et al., 2005; Cheng, 2010. 광은정, 손은정, 2008.). Cheng(2010)은 여성이 갈등상황에서 문제를 더 관계 지향적으로 해결하도록 사회화되고 교육받는 반면, 남성은 성취나 과업 중심으로 사회화되고 교육 받아 회피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연인관계에서 회피 대처는 자신의 연애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선행 연구(설경옥 등, 2016)를 통해 여성보다 회피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는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이성관계 만족도 관련 연구들이 대부분 여성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남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이성 관계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은 태어남과 동시에 생물학적 차이에 따라 ‘아들’ 혹은 ‘딸’이라는 말로 구분된

다. 그리고 개인의 의사와는 별개로 이 성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많다. 예를 들어 옷이나 신발의 색이 달라지기도 하고, 심지어는 남자아이라는 이유로 정서표현을 억압받기도 한다.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 문화적 요인에 의해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 성에 기반을 둔 각기 다른 성역할을 형성한다. 성역할이란 개인이 속한 사회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 따라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생각이나 행동, 태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성역할을 내면화하고 동일시하는 정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을 형성하지만 O'Neil(1981)은 엄격하고 제한적인 성역할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하였고, 이를 '성역할 갈등'이라고 정의했다. 즉, 성역할의 사회화 과정에서 남성은 남성성을 강조하고 내면의 여성성을 억압하게 된다.

성역할갈등은 여성성이 드러나거나 자신의 남성성을 상실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여성을 억압하고 제한하는 '여성성'에 대해서는 여성 운동을 통해 도전받고 비판 받아 왔다. 반면에 '남성성'과 관련하여 남성적 특성을 많이 지닐수록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남성성 모델(masculinity model)'로 인해 남성성의 부정적 기능에 대한 분석은 더디게 진행되었다(Whitley, 1984). 특히나 우리 사회에서는 남성이 내면의 여성성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 더욱 엄격하고(하문선, 김지현, 2017), 남성보다는 여성이 여성의 성역할에 덜 고정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윤유경, 채지영, 2001). 즉, 우리 사회는 남성성을 드러내는 여성을 가리키는 '걸크러쉬', '가모장적'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보다 자유롭게 지각하는 반면 여성성을 드러내는 남성에 대해서는 사회의 시선은 엄격하고, '맨크러쉬'라는 단어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남성은 강하고 울지 않으며, 약한 것들을 보호하는 남자다운 남자로 성장하도록 사회화되는데 이는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성역할 갈등과 관련한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우울, 대인 불안, 정서적 위기와 정적 관계를,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결혼만족에서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양순금, 2017; 모운수, 김지현, 2016; 하문선, 김지현, 2016; 박관성, 2012;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일수록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박관성, 2012; 양순금, 2017). 중년기 기혼 남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과 결혼 만족에 부적인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혔고,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남자 대학생들의 친밀감이 감소하고, 이성 관계만족에 부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Sharpe & Heppner, 1991;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김정현, 2005; 박관성, 2012; 김꽃송이, 2017). 선행연구에

서는 이 결과에 대해 사적인 자기를 개방하는 것이 결혼생활과 이성관계의 주요 기능 중 하나임에도, 남성 성역할과 관련된 왜곡된 신념이 이를 방해하여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였다(김지현 외, 2005; 김정현, 2005).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친밀한 관계의 형성과 유지에서의 어려움을 유의미하게 예측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남성 성역할 갈등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김꽃송이(2017)가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바 있지만, 그 외에 매개효과를 탐색한 연구를 찾기는 쉽지 않다.

O'Neil과 Nadeau(1999)는 성역할 갈등과 성역할 사회화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남성 폭력 모형 중 소인(predisposition)적 역동성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남성은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성역할에 대해 고정적이고 왜곡된 성역할 논리를 학습하게 된다. 예를 들면, 남성과 남성성이 여성과 여성성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나 감정이나 친근감, 정서 등이 인간적인 것이기 보다 여성적인 것이라고 믿는 것 등이다. 왜곡된 성역할 논리를 학습한 결과로 남성은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고, 여성성을 경시하거나 억누르기 위해 노력하며, 남성성을 상실하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Mich'ele Harway, James M. O'Neil, 1999).

남성들은 타인이 그들의 남성성을 의심하거나 스스로 자신의 성역할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성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이는 분노, 공포, 죄의식, 불안, 수치, 자기혐오, 슬픔 등의 부정적 감정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부정적 감정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남성은 방어기제와 자기 보호적 방어 전략을 활성화 시킨다. 이 때 남성이 활성화시키는 자기 보호적 방어 전략 중 하나는 제한적 정서성이다. 제한적 정서성은 남성의 감정 표현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인 정서를 표현하는 말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 타인의 정서 표현을 제한하려는 욕구 등으로 정의된다. 제한적 정서성은 남성이 타인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자신을 노출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스스로의 남성 성역할을 보호하지만, 결과적으로 친밀한 관계의 형성에는 방해가 된다(Mich'ele Harway, James M. O'Neil, 1999).

성역할 갈등과 성역할 사회화 관점에서 본 여성에 대한 남성 성폭력 모형에 따르면 남성은 성역할 갈등에 대한 방어기제로 제한적 정서성을 활성화하는데, 구체적으로 다음 네 가지의 왜곡된 성역할 논리로 인한 성역할 갈등에서 발생한다. 첫째, 정서나 감정은 여성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피해야한다. 둘째, 감정적인 남자는 나약하고 미숙하고 의존적이다. 셋째, 감정적 의사소통은 내면의 공포를 노출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통제의 상실을 야기할 위험이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이 취약한 감정의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 즉, 남성이 관계에서 감정이 개입되는 상황에 놓이면, 왜곡된 성역할 논리에 의해 성역할 갈등이 발생하고 이를 해소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적 정서성이라는 자기 보호적 방어 전략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제한적 정서성은 여성성으로 여겨지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가 드러나는 것을 제한한다. 이는 관계에서의 솔직한 표현을 제한한다는 것을 설명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관계진술성을 매개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관계 진술성이란 진술성의 개념에서 출발하였다. 진술성은 자신이 느끼는 내적 사고와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Harter, 2002). 하지만 진술성의 개념이 모호하고 개인차 변인으로 보는 견해와 관계적 구성개념으로 보는 견해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관계적 구성개념으로 본 Lopez와 Rice(2006)는 관계진술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했다. 관계 진술성이란 밀접한 두 사람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표현력과 성역할 갈등이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힌 바 있다(Sharpe et al, 1995). 또한 모운수와 김지현(2016)은 중년 남성이 관계에 있어서 내면의 생각이나 느낌을 기꺼이 개방하는 것을 억제하는 친밀감 두려움과 성역할 갈등의 정적 상관이 있음을 밝혔다.

기존의 연구들에서 감정과 관련한 자기노출이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되었다(조은정, 이기학, 2002; 이미영, 2009). Jourard(1970)는 자기 노출에서의 남녀 차이가 단순한 생물학적 성차뿐만 아니라 남녀가 서로 다른 성역할을 부여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여성에게는 대화와 사적인 자기 노출이 타인에게 긍정적으로 보이고, 강화된다. 하지만 남성이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거나 표현하는 것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보고, 이를 제한하는 문화에서 교육받는다. 이를 통해 남성이 여성에 비해 관계 내에서 자신을 진술하게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고(곽소영, 이지연, 2013; 김지민, 홍혜영, 2016), 최바울 외(2013)의 연구에서는 남성의 관계 진술성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족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밝혔다. 선행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 관계만족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바 있다. 심리적 안녕감은 포괄적이고 개인 내적인 변인이나, 본 연구에서는 관계적 측면인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려한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교제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채 연구를 진행하였다. 관계진술성이 친밀한 관계 내에서 드러나는 성격적, 행동적인 특성임을 감안하면,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교체기간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성관계와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도 교체기간은 친밀감의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며, 교체기간에 따라 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바 있다(박선미, 2003; 곽소영, 2007).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성관계에서의 갈등해결전략으로 부정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많았다(노현숙, 2006; 강진희, 2011). 곽소영(2007)의 연구에서는 6개월 미만의 교체기간을 가진 사람들보다 1년 이상의 교체기간을 가진 사람들이 의사소통문제를 더 느낀다고 하였으며, 강진희(2011)의 연구에서도 6개월 미만인 경우보다 6개월 이상인 경우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의 점수가 더 높았다. 다시 말해, 이성교제 기간에 따라 의사소통과 관련된 양상에서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그 시기는 6개월을 기준으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중인 남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체기간에 따라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고, 남성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려 한다.

성인초기의 발달 과업은 이성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지만, 성역할 갈등을 겪는 남성은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이성 관계만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은 자신을 보호하고자 제한적 정서성의 방어 전략을 사용하지만, 관계적 측면에서는 유용하지 못한 결과를 낳는다. 따라서 관계진술성이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 관계만족을 매개할 것으로 보이며, 이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이를 통해 한국 대학생 남성에 대한 이해를 돕고,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봄으로써 대학생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을 높일 수 있는 상담적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관계진술성이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 관계만족의 관계에서의 매개효과를 갖는지 알아보고자 하며,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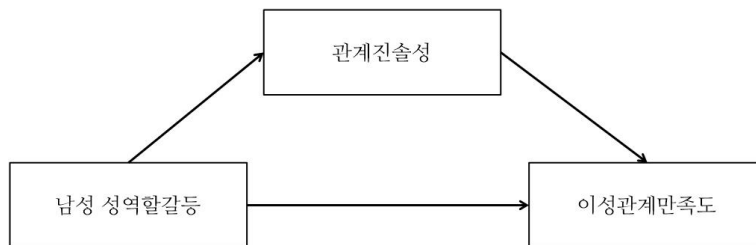
첫째, 교제기간에 따라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는 각각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남자 대학생의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남자대학생의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의 모형은 아래 <그림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 II. 이론적 배경

### A. 이성관계 만족도

#### 1. 이성관계 만족도의 개념

이성관계란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사랑에 기초하는 관계이다. 특히 대학생 시기는 대인관계 폭이 넓어지고, 이성교제가 활발해지는 시기이며, Erikson(1959)은 이 시기를 친밀한 관계를 확립함으로써 사랑이라는 덕목을 획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상담적 요구를 분석한 결과 24.63%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상담 프로그램을 요구하였고(박미라, 2017), 대학생활에서 하고 싶은 활동으로 폭넓은 대인관계와 이성교제에 많은 수가 응답하였다(김광수, 김현령, 2013; 김유숙, 2012).

이성관계는 대인관계 유형 중 친구 관계와는 구별되는 사랑에 기초한 친밀한 이성과의 낭만적 관계로서 서로에게 적극적인 지지자가 된다(손현지, 2009). 이성관계 만족은 관계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을 뜻한다(홍대식, 2000). 초기 성인기의 이성교제의 형성과 유지하는 개인의 성장과 사회적 측면의 발달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성관계를 통해 개인은 새로운 관점에서 자신을 바라 볼 수 있는 기회와 동기를 갖게 되고, 긍정적인 자아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다(김언희, 2004; 이정우 등, 1992). 또한 이성을 이해하고 인간관계의 기술을 습득하여 인격적 성숙을 도모할 수 있다(박은영, 2003). 이성교제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과 상대방의 행동이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험하며 사회적 가치를 학습하고, 사회적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다(김은지, 1997). 하지만 이성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개인의 좌절, 우울, 긴장과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할 수 있다(조유리, 2014).

선행연구에서는 어떤 요인을 통해서 이성관계를 만족스럽게 여기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성인애착 중에서도 불안정애착과 회피애착이 이성관계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김용주, 장현아, 2017; 김희경 외, 2012; 노유진 외, 2006), 고민정과 송미경(2017)은 불안정 성인애착을 형성했어도 정서조절능력이 있다면 이성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다음으로 내현적 자기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부적상관을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박효경, 김현아, 2017; 김지민, 홍혜

영, 2016)가 있었는데, 이 결과에 대해 내현적 자기에가 높은 사람은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친밀한 이성관계 내에서 관계진술성이 낮아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다고 하였다(박효경, 김현아, 2017; 김지민, 홍혜영, 2016). 거부민감성이 높은 사람은 이성관계 만족도가 낮다는 연구에서는 거부민감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도 거부불안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이 저하되었다(박영은, 2017; 조재숙, 2017; 박선미, 2017). 이인재와 양난미(2015)의 연구에서는 자존감 수준이 낮은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공감능력과 거부민감성이 완전매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자기노출과 친밀감의 정적 관계를 밝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친밀감을 덜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다(박혜련, 손은정, 2012).

Cramer(2000)는 관계에서의 만족이 갈등 자체보다 화를 내거나 그 갈등을 회피하는 부정적인 갈등 해결방법 혹은 해결되지 못한 갈등과 관련 있다고 하였다. 즉, 이성관계 내에서 적절한 자기 주장능력과 갈등해결전략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다. 국내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 즉 이성적 갈등 해결, 낮은 회피전략과 적은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과 이성관계 만족이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이지연, 서수균, 2011; 김지현, 2006; 조재숙, 2017). 또한 이성관계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상대방에게 명확하고 진솔하게 표현할수록 즉, 관계진술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았다(차준범, 2016; 최바울 외, 2013; 곽소영, 이지연, 2013; Wickham, 2013).

초기 성인기의 이성관계 만족과 관련된 연구는 개인의 성장을 도모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지니며, 초기 성인기인 대학생들의 상담에 있어서 이성관계와 관련된 호소에 대하여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여성이 발달 과정상 애착, 관계, 친교, 유대의 방향으로 심리적 발달을 이루기 때문에 주로 여성의 이성관계 만족을 연구하거나, 혹은 남녀 구분 없이 연구가 진행되었다(송슬기, 2014).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남성의 집착행동이 관찰되거나, 관계의 지속과 결별에 남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나타났다(김소희, 이영순, 2015; 박윤주, 2016). 또한 관계 내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남성이 여성보다 회피 대처를 더욱 많이 사용하였는데, 연인관계에서 회피 대처는 연애 만족을 저하시킨다는 결과가 있다(설경옥 등, 201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다.

## B. 남성 성역할갈등

### 1. 남성 성역할갈등의 개념

성역할이란 특정한 문화에서 성별에 따라 수행하는 행위나 역할을 기대하는 규범 또는 태도를 의미한다(장휘숙, 2012). 개인은 생애 초기부터 일생동안 성역할을 형성 및 학습하며, 내면화하는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모운수, 김지현, 2016). 하지만 엄격한 성역할 규범이 개인이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자신이나 타인에게 엄격한 성역할을 강요할 수 있다. 내면화된 성역할이 자신과 타인에게 부정적인 심리적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성역할 갈등이라고 한다. 성역할 갈등이 다른 사람에게 표현되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 야기 될 때, 개인 내적으로나 대인 관계적으로 경험될 수 있다(O'Neil, 1981, 2013).

특히 남성의 경우 성역할에 벗어나는 행동을 했을 경우 여성보다 더 많은 경멸과 조롱의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보다 더 과도하게 성역할을 내면화하는 경향을 보인다(하문선, 김지현, 2017; Corbett, 2009). 남성은 전형적인 여성적 가치나 태도, 행동과 관련된 것에 대해 부정적인 사고나 감정을 갖게 되며, 스스로의 여성성을 억압한다. 즉 남성적 특징은 내면화하지만 감정 표현과 같은 여성적 태도, 가치, 행동은 피해야 하는 것으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그 결과 여성성이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전인적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요소임에도, 대다수의 남성들은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을 억압함으로써 우울, 불안, 대인관계 문제 등의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한다(O'Neil, 1981, 1982).

학자들에 따라 남성의 성역할과 관련되어 경험하는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성역할 스트레스, 성역할 긴장, 성역할갈등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 의미들은 유사하다(서은경, 2000). Pleck(1981)은 '성역할 긴장이론(Gender-role Strain Paradigm)'에서 개인이 성역할에 따라 사는 것이 실패한 경우 심리적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남성이 운동을 못하거나, 여성이 신체적으로 매력적이지 않은 상태가 심리적 긴장을 야기하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려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현실 자기의 모습의 괴리가 개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모운수, 김지현 2016).

O'Neil(1981)은 남성의 성역할 사회화 과정에서 남자다움에 대한 가시적인 모델이 충분히 보여지지 않음으로써, 남자다움이 곧 여자 같지 않음으로 정의되어 남성은 자

신이 여자처럼 되지 않을까에 대한 공포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즉 남성들은 자신 내면의 여성성을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은 성역할 갈등의 4가지 패턴과 관련 있다. 첫 번째는 힘과 경쟁을 통해 성공이나 권력을 추구하는 태도인 성공·힘·경쟁(Success, Power, Competition: SPC), 둘째,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는 제한적 정서성(Restrictive Emotionality: RE), 셋째, 남성 간 애정 표현에 불편함을 느끼는 남성간 애정행동 억제(RABBM: Restrictive and Affectionate Behavior Between Men), 넷째, 일이나 학업에 과로하는 경향으로 가족에 상호작용이 부족해지거나 여가와 휴식의 부족 등의 스트레스와 관련된 일과 가족관계간의 갈등(Conflicts Between Work and Family Relations: CBWFR)이다. O'Neil 등(1986)은 남성의 성역할 갈등의 인지, 정동, 행동 영역이 혼합된 성역할 갈등 척도(Gender Role Conflict Scale: GRCS)를 개발했고 위의 4개 요인이 성역할 갈등 척도의 하위요인이다.

국내에서는 이수연 등(2012)이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가 있다. 이 척도는 O'Neil의 성역할갈등척도와 Eisler와 Skidmore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ale Gender Role Stress Scale: MGRSS, 1987)와 한국적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것이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GRCS와는 다르게 6개의 검사 요인이 나타났다. 4개 요인은 공통적이지만, ‘가장 의무감’과 ‘남성 우월’의 요인이 새롭게 나타났다. 가장 의무감은 한 가정을 이끌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부양, 리더십의 의무, 가족을 위한 희생의식을 포함한다. 이는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역할 중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남성 우월은 여성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있어야 한다는 관념과 관련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이 개인내적으로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 물질 사용, 낮은 자아 정체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인관계적으로는 낮은 친밀감 수용 능력, 친밀한 관계의 부족과 관계가 있었고, 가족과 커플의 역동적 맥락에서도 연구가 진행되었다(O'Neil 2013). 국내에서도 남성 성역할 갈등이 우울, 대인 불안, 정서적 위기와 정적 관계를, 자아 존중감, 대인관계, 결혼만족, 이성관계 만족에서 부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양순금, 2017; 모윤수, 김지현, 2016; 하문선, 김지현, 2016; 박관성, 2012;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김꽃송이, 2017).

## 2.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대인관계, 결혼만족, 이성관계 만족 간에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보고하였다(박관성, 2012; 양순금, 2017; 김지현 외, 2005), 김꽃송이, 2017; 김정현, 200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성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대인불안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지고, 대인관계문제와는 정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제한적 정서성이 대인관계와 높은 관련이 있었다(양순금, 2017; 김신애, 2005). 이를 통해 자신의 정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정서를 이해하더라도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남성의 경우 사회적 상황에 부적절감을 느끼고, 이는 곧 적절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신애, 2005). 황옥경(2004)은 결혼만족에 있어서 남성성보다 여성성이 더욱 높은 상관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중년기 남성 성역할과 결혼만족을 살펴본 연구에서 여성성이 배우자의 결혼만족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높은 성역할갈등이 남편의 결혼만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했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관계에 대해 살펴본 김정현(2005)의 연구에서는 남성 성역할갈등이 친밀감과 부적 상관을 보였고, 김꽃송이(2017)의 연구에서도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 간의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 C. 관계진술성

### 1. 관계진술성의 개념

관계 진술성의 개념은 진술성에서 출발했다. 진술성이란 자신이 느끼는 내적 사고와 경험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다(Harter, 2002). 진술성을 개인 내적 변인으로 바라보는 학자와 관계 내 상호 개념으로 바라본 학자들로 나뉘어졌다. 진술성을 관계 내 상호적 개념이라는 관점을 취한 Lopez와 Rice(2006)는 관계진술성을 ‘개인적 불편과 파트너의 비승인 및 관계 불안정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생한 자기 경험에 대하여 나누고, 정직하게 교환하기를 선호하는 관계도식’이라고 정의하였다(김예실, 이희경, 2010, 재인용). 관계에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은 건강한 관계를 위하여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Lopez & Rice. 2006; Rogers, 1951). 진술성에 대해 학자들간의 상이한 관점으로 경험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았으며, 최근에 관

계진솔성 척도가 개발되었다.

Lopez와 Rice(2006)는 관계진솔성척도(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Scale: AIRS)를 고안하였고, 기만에 대한 비수용(Unacceptability of Deception: UOD)과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Intimate Risk-Taking: IRT)의 두 가지 하위 요인을 제시하였다.

국내에서는 곽소영과 이지연(2013)이 Lopez와 Rice(2006)에 의해 개발된 관계 진솔성 질문지(AIRS)를 ‘한국판 관계 진솔성 척도(K-AIRS)’로 번안하고 타당화였다. AIRS에서는 두 개의 하위 요인이 나온 것과 달리 K-AIRS에서는 2개의 하위 요인에 더불어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요인이 추가되었다. 이는 서구의 개인주의적 문화와 달리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집단적 한국 문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다(곽소영, 이지연, 2013; 최상진, 김기범, 1999).

국내에서도 관계진솔성에 대한 연구는 척도의 부재와 문화적 요인으로 인해 최근에 들어서야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관계진솔성은 내면화된 수치심과 부적상관을 보였고, 하위요인 중에서도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높은 부적 상관이 나타났고, 이성관계 만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곽소영, 이지연, 2013).

## 2. 남성 성역할갈등과 관계진솔성

O’Neil과 Nadeau(1999)는 가부장 제도와 남성 신비주의, 남성 중심적 가치체계에 대한 사회화로 남성 성역할 정체성이 형성된다고 하였다. 이 모델에 따르면 남성 성역할 정체성은 왜곡된 성역할 논리, 성역할 갈등, 부정적 감정, 전통적 방어기제와 자기 보호적 방어 전략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한다. 고정적인 성역할을 내면화함으로써 남성은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거세에 대한 두려움을 형성하며 성역할 갈등을 느끼게 된다. 남성에게 성역할 갈등은 잠정적 거세나 다름없는 위협으로 느껴진다. 여성성에 대한 두려움과 거세에 대한 두려움은 분노, 두려움, 죄책감, 상실 등의 부정적 감정을 야기하는데, 남성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아 방어기제를 사용한다. 자아 방어 기제에는 권력과 통제, 제한된 정서성, 동성에 공포증/이성애주의가 있다. 권력 통제는 남성 성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통제하려는 것이고, 동성에 공포증/이성애주의는 보다 간접적인 방어 전략으로서 이성애가 우수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신념과 동성애에 대한 혐오나 편견,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제한된 정서성은 남성의 감정 표현에 대한 두려움, 근본적인 정서를 표현하

는 말을 찾는 것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정의된다. 또한 제한적 정서성은 자기 노출이  
 나 감정의 인식, 대인 간에 발생한 복잡한 감정 처리에의 어려움 등을 의미한다. 제한  
 적 정서성은 정서성과 관련된 네 가지의 왜곡된 영역할 논리에서 발생한다. 첫째, 정서  
 나 감정, 나약함은 여성적인 징표이기 때문에 피해야한다. 둘째, 감정적인 남자는 나약  
 하고 미숙하고 의존적이다. 셋째, 감정적 의사소통은 내면의 공포를 노출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력과 통제의 상실을 야기 할 위험이 있다. 넷째, 다른 사람들이 취약한 감정  
 의 표현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아 보호적 방어 기제는 일시적 방어일 뿐, 효과적  
 인 해결방안은 아니다. 따라서 제한적 정서성은 밀접한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이나 사  
 고를 솔직하게 표현하지 못하게 하여 관계진술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 3.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살펴 본 선행연구들에서 관계진술성이 높을  
 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한다. 이성관계에서 파트너에게 덜 방어적이고 더  
 개방적일 때 관계를 더 진술하다고 느끼고 신뢰와 안정감을 가져 이성에 대한 만족도  
 가 증가하게 된다(Rice, Lopez, 2006; Wickham, 2013). 광소영과 이지연(2013)의 연구  
 에서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계진술성에 유의미한 정적 상관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차준  
 범(2016)의 연구에서 남녀 모두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유의미한 자기효과를  
 보였는데, 여성의 경우 자기효과에 더불어 상대방효과도 나타난 반면, 남성은 자기효과  
 만이 유의미했다. 최바울 외(2013)의 연구에서도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이성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즉, 친밀한 관  
 계내에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진술하게 표현할 때 더욱 친밀한 이성관계를 추구하고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관계진술성과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정서표현, 자기노출 등이 있으며, 이 변인들과 이  
 성관계 만족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를 통해서도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를 유추해볼 수 있다(김나영, 2014; 김희경 외, 2012; 김교현, 1992).



### Ⅲ. 연구방법

#### A. 연구 대상

본 연구는 G광역시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자료와 현재 이성교제중이지 않은 206부를 제외하고 총 214부의 자료를 결과 분석에 활용하였다.

#### B. 측정 도구

##### 1. 남성 성역할갈등

본 연구에서는 남성 성역할갈등을 측정하기 위해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2012)가 개발한 ‘한국형 남성 성역할갈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남성 성역할갈등의 대표적 검사인 O’Neil의 성역할 갈등 척도(GRCS) 37문항, Eisler와 Skidmore의 남성 성역할 스트레스 척도(MGRSS) 40문항에 더불어 일반 한국인의 경험을 반영한 문항과 문헌 연구를 통해 연구진들이 개발한 문항으로 개발하고 타당화 한 것이다.

이 척도는 총 37문항으로 응답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에서 ‘매우 일치한다’까지 6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갈등이 높음을 의미한다. 남성우월(예: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일·가정 양립 갈등(예: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을 방해한다.), 감정표현 억제(예: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성공·권력·경쟁(예: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서 중요하다.),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예: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가장의무감(예: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의 6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남성우월과 가장 의무감 요인은 한국형에서만 나타나는 고유한 요인이며, 나머지 4개 요인은 GRCS와 공통적이다. 이수연 등(2012)의 연구에서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0이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5이며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값은 <표 1>과 같다.

<표 1> 남성 성역할갈등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남성우월	8	3, 9, 13, 16, 18, 20, 28, 30	.77
일·가정 양립 갈등	6	4, 14, 17, 27, 31, 36	.72
감정표현의 억제	7	2, 6, 15, 19, 22, 25, 29	.74
성공/권력/경쟁	8	1, 5, 12, 19, 22, 25, 32, 34, 37	.78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5	7, 10, 26, 33, 35	.73
가장 의무감	3	8, 11, 21	.72
전체	37		.85

## 2. 관계진솔성

본 연구에서는 관계 진솔성의 측정을 위해 광소영과 이지연(2013)이 Lopez와 Rice(2006)에 의해 개발된 관계 진솔성 척도(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Scale: AIRS)를 타당화한 한국판 관계진솔성 척도(Korean version of Authenticity in Relationships Scale: K-AIR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2문항이며, '전혀 아니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9점 Likert 척도를 사용한다.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 진솔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는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 기만에 대한 비수용의 3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정서적인 측면으로 자신의 진실된 모습이 상대방에게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의미하며, '내 여자(남자)친구에 대해 차라리 별로 알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등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친밀함에 대한 위험 무릅쓰기'는 친밀한 관계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드러내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여자(남자)친구가 비록 함께 공감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장 깊은 감정들을 그녀(그)에게 드러낸다.' 등 10문항이다. '기만에 대한 비수용'은 속이거나 숨기지 않으려는 태도를 의미하며 '나는 진정한 나이기 보다는 여자(남자)친구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문항을 포함하여 총 6문항이다. 광소영과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6이다. 본 연구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81 이며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값은 <표 2>와 같다.

<표 2> 관계진솔성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6	1*, 2*, 3*, 4*, 5*, 6*	.83
친밀함에 대한 위협 무릅쓰기	10	7, 8, 9, 10, 11, 12, 13, 14, 15, 16	.87
기만에 대한 비수용	6	17*, 18*, 19*, 20*, 21*, 22*	.81
전체	22		.84

### 3. 이성관계 만족도

Snyder(1979)의 결혼만족도 검사(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MSI)를 권정혜와 채규만(1999)이 한국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고 예비검사를 실시하여 표준화한 한국판 결혼만족도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 K-MSI)를 제작하였다. K-MSI를 유소영(2000)이 이성교제에 적절한 표현으로 수정한 것을 이복동(2001)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상관이 낮은 문항을 제거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는 전반적 불만족(예: 나는 우리의 이성교제가 관계가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예: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예: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공유시간 갈등(예: 우리는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의 4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41문항이다. 원척도는 진위척도(그렇다/아니다)로 평가되며, 하위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본 연구자는 해석상의 편리함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5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정문항은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이성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해석하였다. 이에 전반적 불만족 척도는 전반적 만족으로, 문제해결 의사소통 문제는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으로,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는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 공유시간

갈등은 공유시간 만족으로 각각 바꾸어 명명하였다. 이복동(2000)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alpha$ )는 전반적 불만족 .90, 정서적 의사소통 문제 .74, 문제해결 의사소통문제 .85, 공유시간 갈등 .74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전체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 )는 .94이며 하위요인 별 문항구성과 신뢰도 값은 <표 3>과 같다.

<표 3>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의 구성내용

하위요인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전반적 만족	16	1, 2, 3*, 6*, 11*, 12*, 16*, 23*, 25*, 27, 29, 31, 32*, 35, 38, 40	.93
정서적 의사소통 만족	7	14, 15*, 19*, 21, 24*, 34, 39	.79
문제해결 의사소통 만족	12	4*, 8*, 10*, 13*, 20*, 22*, 28*, 30, 33*, 36*, 37*, 41	.87
공유시간 만족	6	5, 7*, 9, 17, 18*, 26	.77
전체	41		.94

### C. 자료 수집

2018년 9월부터 10월까지 약 2개월간 G광역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을 실시하기 전, 참가자에게 연구 목적과 설문 응답 방법, 참가자의 권리 및 비밀보장 등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통해 동의를 구하였으며, 설문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자가 직접 설문 안내 및 배부 후 수거하였다.

설문지는 인적사항, 남성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의 총 3가지 척도로 구성되었다.

### D.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연구문제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spss 24.0을 사용하였으며,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내적 합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alpha$  계수를 활용하여 신뢰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둘째, 남성 성역할갈등,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진술성의 기초통계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통계를 수행하였고,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애기간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관계 만족 간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모델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관계진술성이 유의미한 매개변수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Sobel test의 결과 값은  $\pm 1.96$ 보다 크면  $p <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개효과가 유의하다고 본다(Sobel, 1987).

## IV. 결과

### A. 기초통계 분석

#### 1. 주요 변인들의 기술 통계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써 남성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고,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다변량 측정 변인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 2와 7을 넘지 않을 경우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West, Finch & Curran, 1995). 본 연구의 모든 측정치들이 정상성에 위배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어 정규성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표 4> 주요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N=214

변인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남성성역할갈등	103.34	18.40	-.46	-.20
관계진술성	128.41	21.18	-.04	-.22
이성관계 만족도	156.73	22.57	-.09	-.80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연구문제를 검증하기에 앞서, 교제기간에 따른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6개월 미만의 교제기간을 가진 사람들의 이성교제에서의 전반적 불만족이 1-2년 미만의 교제를 한 사람들과 차이를 보였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곽소영, 2008; 노현숙, 2006), 연구 참여자의 교제 기간을 6개월 이하와 6개월 초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었고, 남성성역할갈등은 교제 기간별 차이가 없었으나 관계진술성( $t= 2.65, p<.01$ ), 이성관계 만족도( $t= 2.36, p<.05$ )에서 교제 초기가 유의미하게 더 높게 나타났다. 하위요인에서는 남성우월( $t= 2.48, p<.05$ ), 성공·권력·경쟁( $t= 2.70, p<.01$ ),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t= 2.65, p<.01$ ), 문제해결 의사소통

( $t = 4.03, p < .001$ )에서 기간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표 5> 주요변인의 교제기간별 차이 일원변량분석 결과

구분	6개월 이하 (N=83)		7개월 이상 (N=131)		t
	M	SD	M	SD	
기술통계치					
연구변인					
남성성역할갈등	100.48	17.93	105.16	18.54	-1.82
남성우월	15.19	5.36	17.06	5.37	-2.48*
일·가정 양립 갈등	18.98	5.58	17.87	4.91	1.52
감정표현의 억제	20.66	5.61	20.38	5.62	.34
성공·권력·경쟁	26.91	6.19	29.33	6.50	-2.70**
남성간 애정행동 억제	9.56	3.39	11.02	4.20	-2.65**
가장 의무감	9.15	3.87	9.46	3.15	-.63
관계진술성	133.16	22.88	125.39	19.52	2.65**
참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	41.51	8.24	39.12	10.13	1.80
친밀함에 대한 위협 무릅쓰기	61.84	14.24	58.17	12.77	1.95
기만에 대한 비수용	29.80	8.87	28.09	8.87	1.42
이성관계만족도	161.27	21.25	153.85	22.98	2.36*
전반적 만족	66.34	9.46	64.74	9.39	1.21
정서적 의사소통	27.42	4.00	27.21	4.73	.33
문제해결 의사소통	44.09	6.88	39.25	9.43	4.03***
공유시간 만족	23.40	4.02	22.64	3.79	1.41

##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표 6> 주요 변인의 상관관계

(N=214)

	1	1-1	1-2	1-3	1-4	1-5	1-6	2	2-1	2-2	2-3	3	3-1	3-2	3-3	3-4
1	1															
1-1	.63**	1														
1-2	.67**	.27**	1													
1-3	.63**	.32**	.24**	1												
1-4	.60**	.21**	.29**	.18**	1											
1-5	.69**	.48**	.35**	.37**	.20**	1										
1-6	.34**	-.08	.31**	.10	.01	.27**	1									
2	-.42**	-.25**	-.10	-.48**	-.23**	-.40**	-.00	1								
2-1	-.47**	-.35**	-.17*	-.48**	-.23**	-.37**	-.06	.72**	1							
2-2	-.03	-.13	.17*	-.20**	.05	-.15*	.16*	.70**	.18**	1						
2-3	-.46**	-.03	-.34**	-.33**	-.41**	-.34**	-.20**	.55**	.37**	-.026	1					
3	-.31**	-.35**	-.12	-.42**	.04	-.31**	.04	.65**	.52**	.56**	.15*	1				
3-1	-.23**	-.30**	-.10	-.40**	.10	-.22**	.10	.63**	.47**	.60**	.07	.94**	1			
3-2	-.28**	-.45**	-.14*	-.36**	.03	-.24**	.24**	.46**	.34**	.45**	.07	.76**	.75**	1		
3-3	-.31**	-.25**	-.14*	-.31**	.00	-.34**	-.16*	.48**	.47**	.28**	.22**	.80**	.62**	.36**	1	
3-4	-.19**	-.19**	-.01	-.33**	-.04	-.19**	.12	.62**	.40**	.62**	.11	.80**	.76**	.65**	.46**	1

\*\* . 상관관계가 0.01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 . 상관관계가 0.05 수준에서 유의합니다(양측).

1-성역할갈등, 1-1남성우월, 1-2일가정양립갈등, 1-3감정표현억제, 1-4성공권력경쟁, 1-5남성간에 정행동역제, 1-6가장의무감, 2-관계진술성, 2-1참자기를 드러내는것에대한두려움, 2-2친밀함에대한위험무릅쓰기, 2-3기만에대한비수용, 3-이성관계만족도, 3-1전반적만족, 3-2정서적의사소통만족, 3-3문제해결의사소통, 3-4공유시간만족



본 연구에서 사용된 남성 성역할갈등,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진술성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에 제시되었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진술성은 각각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r=-.31, p<.01$ ;  $r=-.42, p<.01$ ). 둘째,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r=.65, p<.01$ ).

t-test를 통하여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유의미한 교제기간별 차이가 나타나 두 집단을 분리하여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성교제초기(6개월 이하)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독립변인인 성역할갈등은 종속변인인 이성관계( $r=-.30, p<.01$ )와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 $r=-.30, p<.01$ )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과 종속변인인 이성관계 만족도( $r=.77, p<.01$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표 7> 이성교제초기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6개월 이하(N=83)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만족	왜도	첨도
성역할갈등	1			-.79	.07
관계진술성	-.30**	1		-.62	-.23
이성관계만족도	-.30**	.77**	1	-.69	.06
평균	100.48	133.16	161.27		
표준편차	17.93	22.88	21.25		

\*\* $.p < .01$

<표 8> 이성교제초기이후 주요변인 간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7개월 이상(N=131)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만족	왜도	첨도
성역할갈등	1			-.30	-.49
관계진술성	-.49**	1		.35	.47
이성관계만족도	-.29**	.56**	1	-.25	-.84
평균	105.16	125.39	153.85		
표준편차	18.54	19.52	22.98		

\*\* $.p < .01$

초기 이후(7개월 이상)의 분석결과는 <표 8>과 같다. 독립변인인 성역할갈등은 종속변인인 이성관계( $r=-.29, p<.01$ )와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 $r=-.56, p<.01$ )에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과 종속변인인 이성관계 만족도( $r=.56, p<.01$ )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 B. 매개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 남성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관계진술성이 매개하는지 검증을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방식으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때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면 분석의 마지막 단계로 관계진술성을 경유하는 간접효과의 유의미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를 이성교제 기간에 따라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회귀분석 전의 사전 검증으로 변수 간 다중 공선성 진단을 위해 분산팽창요인(VIF)과 공차한계를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분산팽창계수가 10 이상이거나 공차한계가 0.1보다 작을 경우, 공선성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강남준, 김두섭, 2008). 본 연구의 변수들의 VIF 값은 이성교제 초기 1.10, 교제초기 이후는 1.30으로 모두 10 미만이었으며, 공차한계는 각각 .90과 .76으로 모두 0.1을 초과하였다. 또한 오차의 독립성을 검증한 결과 Durbin-Watson 통계량이 2에 가까우므로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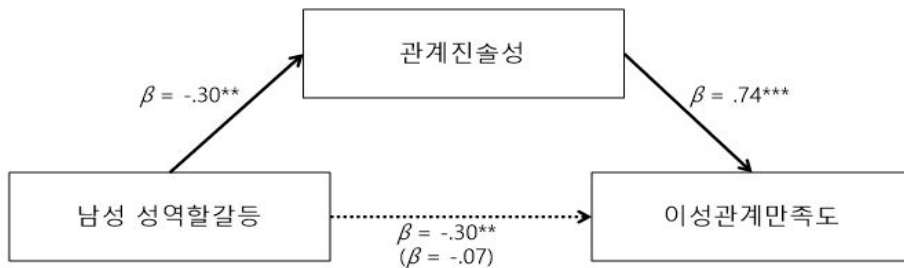
교제 기간에 따라 관계진술성이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다. 교제초기(6개월 이하)의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 9>와 <그림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9>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6개월 이하)

N=83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SE	t	R <sup>2</sup>	F
1	이성관계만족도	성역할갈등	-.35	-.30	.12	-2.84**	.09	8.06**
2	관계진술성	성역할갈등	-.38	-.30	.13	-2.87**	.09	8.27**
3	이성관계만족도	성역할갈등	-.08	-.07	.08	-.98	.59	59.11***
		관계진술성	.69	.74	.07	10.01***		

\*\*p<.01, \*\*\* p<.001



< 그림 2 > 교제기간 6개월 이하의 남성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먼저 이성교제 초기의 결과에서 남성 성역할갈등은 1단계에서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30, p < .01$ )은 유의하였고, 남성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를 설명하는 설명력은 9%인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30, p < .01$ )도 유의하였으며, 남성 성역할갈등이 관계진술성을 설명하는 정도는 9%인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74, p < .001$ )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59%로 상승한 반면, 남성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7$ ). 즉,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남성성역할갈등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만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그 설명력 또한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진술성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2.80$ 으로  $p < .001$ 수준에서 산출되어 관계진술성이 매개효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애 초기의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은 완전 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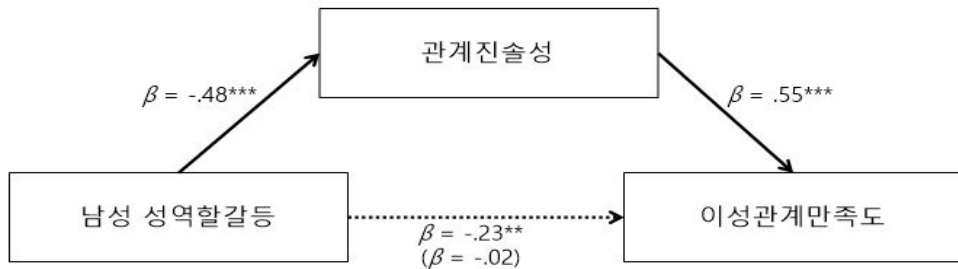
다음으로 교제 후기의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진술성이 매개하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표 10>과 <그림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7개월 이상)

N=131

단계	종속변인	독립변인	B	$\beta$	SE	t	R <sup>2</sup>	F
1	이성관계만족도	성역할갈등	-.29	-.23	.10	-2.78**	.05	7.73**
2	관계진술성	성역할갈등	-.48	-.48	.07	-6.32***	.23	40.05***
3	이성관계만족도	성역할갈등	-.02	-.02	.10	-.27	.31	29.48***
		관계진술성	.64	.55	.09	6.54***		

\*\* $p < .01$ , \*\*\*  $p < .001$



< 그림 3 > 교제기간 7개월 이상의 남성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교제기간 7개월 이상 집단의 결과에서 남성성역할갈등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23$ ,  $p < .01$ )은 유의하였고, 2단계에서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에 미치는

영향력( $\beta = -.48, p < .001$ )도 유의하였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동시에 투입하였을 때,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beta = .55, p < .001$ )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이 31%로 상승한 반면, 남성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beta = -.02$ ). 즉,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남성성역할갈등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만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 그 설명력 또한 증가(5% → 31%)했다. 마지막으로 관계진술성이 유의미한 매개변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 = -4.93$ 으로  $p < .001$ 수준에서 산출되어 관계진술성이 매개효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교제초기 이후의 남성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은 완전 매개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내용은 <그림 2>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이 결과를 통해 교제기간과는 무관하게 남성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를 관계진술성이 완전매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V. 논의

### A. 결론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이 이성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관계진술성이 매개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주요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역할갈등,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를 상관 분석한 결과,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갈등과 관계진술성, 이성관계 만족도는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나타났고,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는 하위변인 간 상관에서 기만에 대한 비수용을 제외한 대부분의 하위변인에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가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며(최바울 외, 2013; Rice & Lopez, 2006), 이성친구와의 진솔한 관계와 관계만족에 정적 상관이 있다는 Wickham(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곽소영과 이지연(2013)의 연구에서 기만에 대한 비수용이 유의미한 상관이 없다는 결과도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자신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줄 때 관계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 관계진술성을 교제기간에 따라 일원변량분석한 결과, 교제기간에 따라 이성관계 만족도가 감소하는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고, 더불어 관계진술성도 교제기간이 지남으로써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이성관계 만족도의 하위요인 중 문제해결의사소통에서 교제기간이 짧을수록 만족도가 더 높았다. 이는 교제기간이 길수록 부정적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며,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가 많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노현숙, 2006; 강진희, 2011). 또한 교제기간이 길수록 상호작용의 빈도가 늘어나며 친밀해 짐으로써 흥미, 관심, 요구, 기대의 불일치를 느낄 기회도 증가한다는 점에서 불만족을 느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선행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Peterson, 1983; 김주연, 2002, 재인용; 곽소영, 2008). 교제기간이 길어지며 부정적 갈등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하고, 의사소통 문제를 많이 경험하는데(노현숙, 2006; 강진희, 2011),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갈등상황에서 회피대처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며(설경옥 등, 2016), 관계진술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관계가 장기화될 경우 이성관계

만족도도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교제기간에 따라 관계진술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차이가 나타난 결과를 반영하여, 교제 기간에 따라 연구 모형을 각각 검증하였으나 교제초기와 교제후기의 매개모델에서 차이가 없었다. 교제기간에 따른 각각의 집단 모두 독립변인인 성역할갈등이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독립변인인 성역할갈등이 종속변인인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은 관계진술성과 동시에 투입되었을 때, 유의미하지 않았고, 매개변인의 영향력만 유의하므로 관계진술성이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Sobel test를 이용하여 탐색한 결과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의 완전매개가 유의함이 검증되었다. 즉 교제초기와 교제후기 모두 남성 성역할갈등이 관계진술성을 매개로 하여 이성관계 만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남성 성역할갈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관계진술성을 통해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즉, 왜곡된 성역할을 학습하여 내면의 여성성을 통합하지 못해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의 경우 여성성의 억압이나, 남성성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이성관계의 만족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여성과의 상호관계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표현하는가에 따라 이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남성의 성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이성관계 내에서의 관계진술성이 낮고, 결과적으로 이성관계에서 만족을 덜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추가하여, 교제 기간에 따라 매개변인과 종속변인의 점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교제 기간에 따라 3개 변인의 관계는 동일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이 이성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자신의 남성성이 상실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자기보호전략을 사용할 때 관계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나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은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한다는 왜곡된 논리로 인해 갈등상황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회피대처를 많이 사용하여 관계에서의 만족도가 떨어지게 된다. 교제기간에 따른 모형검증에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은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의 이성관계에서 진솔하게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전통적인 남성 성역할을 내면화하여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의 경우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O'Neil, 2015). 또한 성역할갈등이 높은 남성이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결혼 생활 및 이성관계에서 좋은 관

계를 형성하는 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박관성, 2017; 양순금, 2017; 김지현 외, 2005; 김정현, 2005). 성역할갈등이 높은 남성은 내면의 억압된 여성성이 드러나거나 혹은 자신의 남성성이 스스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인 이성관계에서 진솔하게 다가가기 보다는 상황을 회피하고 자신을 잘 보일 수 있는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이성관계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결과는 남성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가 유의미한 부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김꽃송이, 2017; 박관성, 2012; 김정현, 2005)와 일관된 결과이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연구에서는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와 의 관계에서 관계진술성이 유의미하게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제기간에 무관하게 남성 성역할갈등이 관계진술성을 매개로하여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른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과 관련한 연구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거나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가 다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남자 대학생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남성의 이성관계에 대해 탐색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이성교제중인 남자 대학생만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본 연구는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이 이성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것에 있어서 관계진술성이 매개역할을 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는 성역할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의 이성관계 만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계 내에서 진술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입이 필요함을 제시하는 것이다. 성역할은 생애 초기부터 형성되어 내면화된 신념의 하나로 단기간에 재구조화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O'Neil, 2015). 따라서 상담 장면에서 성역할갈등을 갖고 있는 남자 대학생이 이성관계와 관련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 보다 단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관계진술성의 향상을 위한 개입(예: 자신의 기분, 감정, 생각을 인식하고 표현하기, 비합리적 신념 수정하기 등)을 함으로써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성역할 갈등이 높은 남성이 원만한 이성관계를 맺을 때 서로에 대해 더 진솔한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성관계에서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장기적 상담목표로서 성역할 내면화로 인한 갈등과 비합리적 신념의 영향력을 다루는 것이 적절 할 것이다.

셋째, 교제가 장기화 될수록 문제해결만족이 감소하고, 관계진술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과 관련하여 선행연구에서는 부정적 감정의 자기노출이 남성 자신의 친밀감의 향상에 도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인 여성의 친밀감에



도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었다(김규리, 2016). 커플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에서 자신을 진솔하게 드러내는 것과 갈등상황에서의 적절한 의사소통, 문제해결기법을 습득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면, 우선 자신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된 신념이나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진솔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 경험에 대해 탐색해볼 수 있다. 그리고 관계 내에서 진솔하지 못했던 자신의 태도가 자신과 상대방의 이성관계 만족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알아보게 함으로써, 개선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와 임상적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G광역시에 거주중인 19세에서 29세의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일반화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연구 대상의 폭을 넓혀 반복 검증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모든 자료는 자기보고형식으로 응답했기 때문에 실제보다 과장, 축소, 왜곡될 가능성과 응답자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경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이성교제 중인 남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6개월 이하 집단 83명, 7개월 이상 집단 131명으로 표본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6개월 이하 집단의 경우, 매개변인인 관계진술성과 종속변인인 이성관계 만족도 간의 상관이 .77로 다소 높은 정적상관관계가 나온 점을 유의하여 해석해야한다. 표본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손창균 외, 2006).

셋째, 이성관계 만족도는 두 사람의 상호작용이 깊게 관여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남성만을 연구에 참여시켰기 때문에 연인 간의 상호작용적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커플 단위 표집을 통해 남성 스스로가 지각한 성역할 갈등과 이성친구가 지각한 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관계만족도를 비교하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상호작용 측면을 보완한다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VI. 참고 문헌

- 강남준, 김두섭, 『회귀분석(기초와 응용)』, 나남, 2008.
-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민정, 송미경 (2017).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회피, 분산적 정서조절양식의 매개. 정서행동장애연구, 33(1), 1-21.
- 곽소영 (2007). 이성관계에서의 심리적 욕구충족에 따른 관계 만족도: 자율성정도와 갈등해결전략의 매개검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소영, 손은정 (2008). 이성 관계에서 심리적 욕구 충족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내재적 동기와 갈등해결 전략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2), 177-195.
- 곽소영, 이지연 (2013). 한국판 관계 진솔성 척도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4(4), 2213-2232.
- 김교현 (1992). 친교관계에서 자기노출의 기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1(1), 196-222.
- 김규리 (2016). 성인 초기 연애관계에서 파트너 관련 부정적 감정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파트너 반응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수, 김현령 (2013). 교육대학 신입생의 특성 변화에 관한 연구: 2013학년도 서울교육대학교 신입생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서울교육대학교 한국초등교육, 24(3), 35-55.
- 김꽃송이 (2017).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갈등과 이성관계 만족도간 관계에서 심리적 안녕감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영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 완벽주의가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노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소희, 이영순 (2015). 마음챙김명상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MBSR) 프로그램이 여대생의 이성 관계 집착행동과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5), 2289-2307.
- 김신애 (2005). 남성의 성역할이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언희 (2004). 기독교대학생의 이성관계 증진을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실, 이희경 (2010). 진정성에 대한 고찰. 인간이해, 31(2), 1-21.
- 김용주, 장현아 (2017). 대학생의 성인애착과 이성 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 해결전략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4(10), 61-82.
- 김유숙, 장춘미, 송지원, 김다희, 황선아 (2012). 2012학년도 신입생 실태조사 연구. 학생생활연구, 25, 121-185.
- 김은지 (1997). 이성관계 증진 프로그램이 교제중인 미혼남녀의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현 (2005). 남자 대학생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이성관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2002). 대학생의 애착 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 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민, 홍혜영 (2016). 대학생의 내현적 자기애가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진술성의 매개효과. 청소년 시설환경, 14(3), 37-49.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 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 김희경, 심혜숙, 이동훈 (2012). 대학생의 성인애착이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인식명확성과 정서표현억제의 매개효과. 한국계슈탈트치료연구, 2(2), 1-21.
- 노유진, 박정윤, 김양희 (2006). 성인애착유형과 미혼남녀의 사랑유형 및 이성교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4(12), 31-42.
- 노현숙 (2006). 낙관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모운수, 김지현 (2016). 중년남성의 성역할 갈등과 중년기 정서적 위기감의 관계에서 친밀감 두려움의 매개효과. 여성연구. 91, 97-126.
- 박관성 (2012). 남성성역할갈등과 대인관계에서의 성인애착의 매개효과. 미래 청소년 학회지, 9(3), 37-51.
- 박노권 (1998). 에릭슨의 사회심리발달 8단계 이론의 분석. 신학과 현장, 8, 187-226.

- 박미라 (2017). 대학 신입생의 정신건강 관련 상담 요구에 관한 연구-스트레스, 우울·불안, 분노조절,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논총, 52, 221-256.
- 박선미, 박경 (2003). 미혼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부부관계와 부모와의 애착이 자녀의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심리치료:다학제적 접근, 3(1), 69-84.
- 박선미 (2017).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정서표현 양가성과 갈등해결전략의 매개효과. 건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은 (2017). 거부민감성과 이성관계만족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인지적 정서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윤주 (2016). 데이터마이닝을 활용한 사랑의 형태에 따른 연인관계 몰입수준 및 관계 지속여부 예측. 지능정보연구, 22(4), 69-85.
- 박찬미, 설경옥 (2017). 자기자비와 관계만족에서 갈등대처행동의 매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분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2(3), 29-46.
- 박혜련, 손은정 (201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거부민감성, 사회불안, 자기노출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3(3), 1083-1099.
- 박효경, 김은하 (2017). 미혼커플의 내현적 자기애와 정서표현 양가성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상담학연구, 18(6), 203-217.
- 서은경 (2000).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주관적 삶의 질과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경옥, 백상은, 원수경, 황여주 (2016). 남녀 개인의 정서조절과 이성 관계 만족에서 공동 대처 방략의 매개: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2), 445-468.
- 설기문 (1993).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 현황과 방향. 大學生活研究 (Journal of Student Guidance Research.), 11, 25-52.
- 손창균, 홍기학, 이기성 (2006). 표본추출 및 관리 매뉴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현지 (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슬기 (2013). 여대생의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여자대학교 특수치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혜, ENDO YUMI, (2011). 한국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성차별 의식 및 군대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문화및사회문제, 17(11),1-17.

- 양순금 (2017). 한국 청년 남성의 성역할갈등과 대인불안 간의 관계에서 분리 : 개별화와 자기제시동기의 매개효과.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 (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 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유경, 채지영 (2001). 성역할 특성의 전환이 호감변화에 미치는 영향: 성차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6, 71-83.
- 이다혜, 류용재 (2017). 청년세대의 연애상담 리얼리티 텔레비전 수용에 관한 연구 - <마녀사냥>과 <김제동의 토틀유-걱정 말아요 그대>를 중심으로. 우리춤과 과학기술, 39, 87-122.
- 이미영 (2009). 자기개방과 공감반응이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 (2000).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거부민감성과 귀인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 5-33.
- 이인재, 양난미 (2015). 대학생의 자존감과 연애관계 만족간의 관계에서 거부민감성과 공감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 상담연구, 23(1), 179-198.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대학교 출판부.
- 이지연, 서수균 (2011). 비합리적 신념과 이성관계 만족도 사이에서 부적응적 갈등대처 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일반, 30(3), 775-791.
- 이한샘 (2014). 대학생이 인식하는 주요 발달과업과 대학생의 적응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성인발달 및 노화심리학』. 박영사, 2012.
- 정미경, 김승용 (2016). 입대 전 대학 신입생들의 군 인식에 관한 질적 분석. 비판사회정책, 53, 377-402.
- 조유리 (2014).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와 성격강점이 스트레스 반응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은정, 이기학 (2002). 이성교제 관계에서 이성친구에 대한 감정적 자기노출과 이성관계 만족의 관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발표 논문집, 2002(1), 417-423.

- 조재숙 (2017). 연애경험에서 거부민감성이 이성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 갈등대처 행동을 매개로.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바울, 백근영, 이은지, 김애란, 왕윤정, 서영석 (2013). 커플의 성인애착과 관계만족: 관계 진솔성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5(2), 227-250.
- 최상진, 김기범 (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사회 및 성격*, 13(2), 275-292.
- 최희철, 김지현 (2009). 남자 청소년의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기은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52, 253-280.
- 최희철, 김지현, 김병석 (2009). 대학상담 : 남성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검증: 대학생을 대상으로. *상담학연구*, 10(2), 1229-1243.
- 하문선, 김지현 (2016). 남성 성역할갈등의 잠재집단과 남성성, 여성성, 우울, 자아존중감의 관계. *상담학연구*, 17(5), 47-64.
- 하문선, 김지현 (2017). 남성 성역할갈등의 남녀 보편화 가능성 검증: 남녀 간 잠재평균분석과 등가제약모형의 적용. *상담학연구*, 18(3), 1-22.
- 홍대식 (2000).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23-262.
- 황옥경 (2004).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결혼 만족도.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on, R. M. & Kenny, D.A. (1986). The Moderator-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 Cheng, C. C. (2010). A study of inter-cultural marital conflict and satisfaction in Taiw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34, 354 - 362.
- Corbett, k. (2009). Boyhoods: Rethinking Masculinity. *New He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73-207.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 Erikson. E.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rter, S., Snyder, S., & Lopez, S. (2002). *Authenticity 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Jourard, S. M., & Friedman, R. (1970). Experimenter–subject“distance” and self 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5(3), 278–282.
- Knee, C. R., Lonsbary, C., Canevello, A., & Patrick, H. (2005). Self–determination and conflict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9(6), 997–1009.
- Kwang, T., Crockett, E. E., Sanchez, D. T., & Swann, W. B. (2013). Men seek social standing, women seek companionship: Sex differences in deriving self–worth from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cience*, 24(7), 1142 - 1150.
- Lopez, F. G., & Rice, K. G. (2006).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measure of relationship authentic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3(3), 362–371.
- Mark J. Sharpe, P. Paul Heppner, Wayne A. Dixon (1995). Gender role conflict, instrumentality, expressiveness, and well–being in adult men. *Sex Roles*, 33, 1–18.
- Michelle Harway, James M. O’Neil, (1999). 『*What Causes Men’s Violence Against Women?*』, 김태련, 이화여자대학출판부, 2002.
- O’Neil, J. M. (1981).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O’Neil, J. M. (1982). Gender and sex role conflict and strain in men’s lives: Implications for psychiatrists, psychologists and other human service providers. In K. Solomon & N. Levy (Eds.), *Men in transition: Theory and therapy*, New York. Basic Books.
- O’Neil, J. M., Helms, B., Gable, R, David, L., & Wrightsman, L. (1986) Gender P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Rogers, C. R. (1951). *Client–centered therapy: Its current practice, implications and theory*. Boston: Houghton Mifflin.
- Sharpe, M. J. & Heppn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23–330.

- Sobel, M. E. (1987). Direct and indirect effects in linear structural equation models. *Sociological Methods & Research*, 16(1), 155-176.
- Snyder, D. K. (1979). Multidimensional Assessment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Nov, 813-823.
- Whitley, B. E. (1984). Sex-role orient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Two meta-analyses. *Sex Roles*, 12, 207-225.
- Wickham, R. E. (2013). Perceived authenticity in romantic partner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9(5), 878-887.



## Ⅶ. 부록

### <부록 1> 남성 성역할갈등 척도(MGRCS)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항상 잘 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1	2	3	4	5	6
2.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기 힘들다.	1	2	3	4	5	6
3. 여성 상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1	2	3	4	5	6
4. 바쁜 일과와 나의 건강관리 사이에서 갈등을 느낀다.	1	2	3	4	5	6
5. 돈을 잘 버는 것은 성공한 사람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다.	1	2	3	4	5	6
6. 나는 남들의 강력한 감정을 이해하기 힘들다	1	2	3	4	5	6
7. 다른 남자들에게 애정을 느끼는 것이 나를 긴장하게 만든다.	1	2	3	4	5	6
8. 나는 집안의 대소사를 책임지고 결정해야한다.	1	2	3	4	5	6
9.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이 불편하다.	1	2	3	4	5	6
10. 다른 남자들에게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위협하다.	1	2	3	4	5	6
11.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1	2	3	4	5	6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2.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쓴다.	1	2	3	4	5	6
13.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다.	1	2	3	4	5	6
14. 가사와 직장(학업) 일에서 모두 완벽함을 요구 받아 힘들다.	1	2	3	4	5	6
15. 상대방에게 당신의 말 때문에 속상했다고 말하기 힘들다.	1	2	3	4	5	6
16. 가사 일을 한다는 것을 친구에게 말하기 어렵다.	1	2	3	4	5	6
17. 느긋한 시간을 갖는 것이 어렵다.	1	2	3	4	5	6
18. 게임에서 여성에게 지면 기분이 나쁘다.	1	2	3	4	5	6
19.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 한다.	1	2	3	4	5	6
20. 직장(학업)에서 여성보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자존심이 상한다.	1	2	3	4	5	6
21.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한다.	1	2	3	4	5	6
22. 재미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렵다.	1	2	3	4	5	6
23. 남들과 경쟁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최선의 방법이다.	1	2	3	4	5	6
24. 남을 이기는 것은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잣대이다.	1	2	3	4	5	6

문항	전혀 아니다	아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5.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적절한 단어를 찾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	1	2	3	4	5	6
26. 나는 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염려되어 남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것을 주저한다.	1	2	3	4	5	6
27. 일이나 공부 때문에 여가시간이나 가족들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 한다.	1	2	3	4	5	6
28. 여성이 내 상황을 통제하도록 놔두는 것은 남성답지 못하다.	1	2	3	4	5	6
29. 나는 남에게 감정을 보이고 싶지 않다.	1	2	3	4	5	6
30. (미래)아내보다 나의 학력, 수입이 더 우위에 있어야 한다.	1	2	3	4	5	6
31. 나의 일이나 학업이 종종 내 생활의 다른 영역(가정, 가족, 건강, 여가)을 방해한다.	1	2	3	4	5	6
32. 학교나 직장에서 나의 성취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인다.	1	2	3	4	5	6
33.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1	2	3	4	5	6
34.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	1	2	3	4	5	6
35. 다른 남성들이 나를 지나치게 친하게 대하면 그들의 성적 취향이 궁금해진다.	1	2	3	4	5	6
36.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1	2	3	4	5	6
37.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느끼고 싶다.	1	2	3	4	5	6

## <부록 2> 관계진술성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여자친구에 대해 차라리 별로 알지 않았으면 나았을 것이다.	1	2	3	4	5	6	7	8	9
2. 만일 내가 어떤 것에 대해 여자 친구의 진짜 마음 (감정)을 알았다면, 아마도 실망하거나 상처받았을 것이다.	1	2	3	4	5	6	7	8	9
3. 나는 내 모습을 여자친구에게 속이는 것 같을 때가 있다.	1	2	3	4	5	6	7	8	9
4. 여자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내 모습은 사실 진정한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7	8	9
5. 나는 여자친구에게 내 진짜 감정을 드러내는 것에 따르는 위협에 대해 추경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	1	2	3	4	5	6	7	8	9
6. 만일 여자친구가 진짜 내 모습을 알게 된다면 그녀는 아마도 놀라고 실망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7. 여자친구가 비록 함께 공감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더라도, 나는 가장 깊은 감정들을 그녀에게 드러낸다.	1	2	3	4	5	6	7	8	9

문항	전혀 그렇 지않 다				보 통 이 다				매 우 그 렇 다
8. 내가 행하는 것 이면의 진짜 이유와 동기를 항상 여자친구에게 이야기한다.	1	2	3	4	5	6	7	8	9
9. 나는 여자친구가 비록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그녀와 가장 깊은 속 이야기(생각)를 나눈다.	1	2	3	4	5	6	7	8	9
10. 내 상황은 여자친구에게 속속들이 다 알려져 있다.	1	2	3	4	5	6	7	8	9
11. 나는 여자친구에게 내 자신의 가장 개인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편하다.	1	2	3	4	5	6	7	8	9
12. 여자친구가 하는 나에게 관한 질문에 솔직하고 충실하게 대답한다.	1	2	3	4	5	6	7	8	9
13. 나는 여자친구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드러내놓고 공유한다.	1	2	3	4	5	6	7	8	9
14. 여자친구와 있을 때 나는 진정한 나이다.	1	2	3	4	5	6	7	8	9
15. 만일 여자친구가 나에게 대해서 긍정적이긴 하지만 부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나는 비록 이런 행동으로 나에게 대한 평가가 낮아지더라도 바로잡을 것이다.	1	2	3	4	5	6	7	8	9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매우 그렇다
16. 여자친구와 나 사이에 금지된 이야깃거리는 없다.	1	2	3	4	5	6	7	8	9
17. 나는 진정한 나이기 보다는 여자친구가 나에게 바라는 모습의 사람이 되는 것이 좋다.	1	2	3	4	5	6	7	8	9
18. 여자친구를 화나게 하지 않으려고 어떤 것에 있어서 나의 실제 감정을 의도적으로 숨긴다.	1	2	3	4	5	6	7	8	9
19. 여자친구를 기쁘게 할 수 있다면 나 자신에 대한 선의의 거짓말을 기꺼이 할 것이다.	1	2	3	4	5	6	7	8	9
20. 관계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나는 가끔 여자친구에게 그게 사실이 아니어도 그녀가 듣고 싶어할 것 같은 말을 한다.	1	2	3	4	5	6	7	8	9
21. 나는 때때로 여자친구에게 내 진짜 모습이 아닌 것을 믿도록 인상을 심어주려는 나를 발견한다.	1	2	3	4	5	6	7	8	9
22. 나는 여자친구가 나에게 대해 완벽히 정확하게 아는 것보다는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낫다.	1	2	3	4	5	6	7	8	9

### <부록 3> 이성관계만족도 척도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의 이성교제가 관계가 꽤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 내 이성친구는 그때그때 내 기분을 대부분 이해하고 있다.	1	2	3	4	5
3. 우리는 같이 이야기 할 주제가 많지 않다.	1	2	3	4	5
4. 우리는 우리의 차이점을 해결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1	2	3	4	5
5. 우리는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1	2	3	4	5
6. 우리는 다른 연인들처럼 잘 지내지 못한다.	1	2	3	4	5
7. 내 파트너에게는 내가 싫어하는 점들이 있다.	1	2	3	4	5
8. 우리는 다룰 때 마다 같은 문제를 반복하는 것 같다.	1	2	3	4	5
9. 나는 파트너와 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꽤 만족하고 있다.	1	2	3	4	5
10. 내 파트너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해서 내가 말조차 꺼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1	2	3	4	5
11. 내 이성교제 관계는 여러 가지 점에서 실망스럽다.	1	2	3	4	5
12. 우리 관계에는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	1	2	3	4	5
13. 내 파트너는 종종 내 생각을 이해하지 못한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4. 내가 슬퍼할 때마다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과 행복을 느끼게 해준다.	1	2	3	4	5
15. 내 파트너는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1	2	3	4	5
16. 우리 관계의 미래는 너무 불확실해서 중요한 계획을 세울 수 없다.	1	2	3	4	5
17.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일이 매우 많다.	1	2	3	4	5
18. 나는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에도 종종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19. 내 파트너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데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1	2	3	4	5
20. 우리는 매우 자주 말다툼을 한다.	1	2	3	4	5
21. 내 파트너는 나에게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한다.	1	2	3	4	5
22. 내 파트너와의 사소한 의견차이가 종종 큰 다툼으로 발전한다.	1	2	3	4	5
23. 만일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면 더 행복하게 느낄 것이다.	1	2	3	4	5
24. 내 파트너가 때때로 나를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같지 않다.	1	2	3	4	5
25. 나는 때때로 우리 만남에 대해서 꽤 낙심하게 된다.	1	2	3	4	5
26. 우리 취미와 여가 생활에서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1	2	3	4	5
27.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연인들보다 더 행복하다.	1	2	3	4	5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28. 내 파트너는 종종 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불평한다.	1	2	3	4	5
29. 내 생각에 우리 만남은 성공적이다.	1	2	3	4	5
30. 내 파트너는 나에게 화가 나더라도 내 의견을 존중한다.	1	2	3	4	5
31. 우리 만남에는 나쁜 점 보다 좋은 점들이 훨씬 많다.	1	2	3	4	5
32. 우리의 다툼은 대부분 우월하게 끝나고 만다.	1	2	3	4	5
33. 우리의 다툼은 자주 둘 중 한 명이 감정이 상하거나 우는 것으로 끝난다.	1	2	3	4	5
34. 내 파트너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중요한 존재임을 느끼게 한다.	1	2	3	4	5
35. 우리 관계가 내가 아는 사람들의 이성교제만큼 즐겁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6. 우리는 의견차이가 있을 때 이성을 잃고 화를 내곤 한다.	1	2	3	4	5
37. 내 파트너는 너무 쉽게 감정이 상한다.	1	2	3	4	5
38. 나는 내 이성교제 관계의 많은 부분에 대해 만족스럽게 느낀다.	1	2	3	4	5
39.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과 애정을 많이 표현한다.	1	2	3	4	5
40. 내 이성교제는 매우 만족스럽다.	1	2	3	4	5
41. 내 파트너는 어려움 없이 비판을 받아들인다.	1	2	3	4	5